본래성불 사상, 대행선의 근간



김호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본래성불', 대행선의 공통적 기반
한마음, 불성·법성·자성 원리 전개
주인공 관법과 오공 보살행 확장

[주제발표]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

대행선이란 대행 선사의 선풍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 선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행선 나아가서 대행 선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행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묘공당 대행 선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평생에 걸쳐서 반복 내지 강조하여 설했던 그 다양한 법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법어들을 통하여 드러나 있는 대행선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마음의 원리를 종지(宗旨)로 삼고, 주인공(主人空)의 편재(遍在)를 본체(本體)로 삼으며, 오공법(五共法)의 실천을 묘용(妙用)으로 하여 각각 종과 체와 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행선의 근본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한마음과 주인공과 오공법의 근원에는 처음부터 모든 측면에 걸쳐서 항상 일관되고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 곧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사상이다. 따라서 대행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래성불의 사상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래성불의 개념은 〈원각경〉, 〈화엄경〉, 〈능가경〉, 〈열반경〉 등 여러 대승경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체중생의 본래성을 긍정한 달마의 조사선풍에서 더욱 더 확장되었다. 곧 달마의 이입으로부터 혜가와 승찬과 도신과 홍인과 혜능 및 이후 선종오가의 조사들에게 전승되면서 보편적인 사상으로서 널리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본래성불의 사상이 대행 선사에게는 자성불, 본래자성불, 자성본래불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계의 진여로서 법신불의 개념에 닿아 있는 한마음의 경우, 무일물과 위음왕불 이전과 부모미생 이전의 근원성으로서 불성과 법성과 자성의 원리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곧 본래성에 대한 철저한 긍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한마음의 구체화이고 개별화로서 출현해 있는 주인공의 경우, 진리이고 빛이며 영원이고 생명이며 부처이고 보살이며 청정이고 긍정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무조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관법 수행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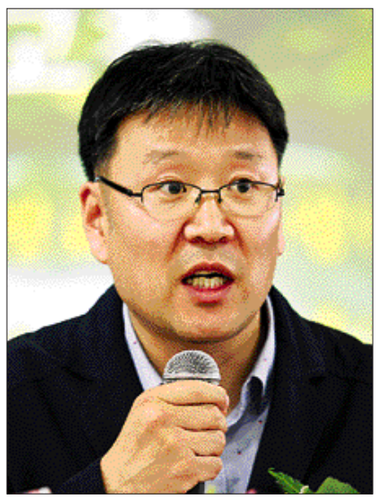
나아가서 한마음의 원리를 공동체의 방식으로 실현해 가는 오공의 경우, 부처와 중생의 본체가 다름이 없다는 동체대비의 근거로서 본래성불의 조사선풍이 보살행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대행선의 사상적인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본래성불의 사상은 대행선사의 법어 곳곳에서 설파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다. 때로는 근원적인 한마음의 원리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본래적인 주인공의 관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평등적인 오공의 공동체의식으로서 일체중생의 기체로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대행선에서 본래성불의 사상이야말로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확신토록 하는 수행법의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행선은 전통의 조사선이 근거하고 있던 본래성불의 사상에 계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긍정을 통하여 평상심으로 전개되었던 보살도에 직결되어 있다.

一心의 현대적 해석 '한마음'

[주제발표] 한마음사상에 나타난 교리적 근거 고찰



박소령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한마음, 진여·불성과 같은 의미
이를 맡겨 관함이 '주인공 관법'
오공 통한 생활불교 강조 연계

불교전통에서 근본 진리를 일심(一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행 선사도 한마음을 요체로 하고 있다.

대행 선사는 '한마음'을 다시 '주인공(主人空)'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인공은 곧 한마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총상인 한마음에서 주체적 자각을 위해서 인격적 의미가 부여된 주인공이라 볼 수 있다.

〈기신론〉에서는 만법의 근원이나 절대적 총상으로서 一心(한마음)을 나타내고 이 일심은 다시 내재적 속성으로서 如來藏(주인공)을 통해 진여와 생멸의 두 문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대행 선사가 설한 주인공도 우리 한마음에 내재된 본성으로서의 진여(眞如)나 불성(佛性)과 같으며 또한 자성불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진여(一心眞如)'와 대행 선사가 말하는 '한마음 주인공'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우리 본연의 총상으로서 한마음을 주체적 주인공으로 구체화시켜 실천상 용이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대행 선사가 말하는 주인공은 한마음을 주체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실천 수행의 핵심이 된다. 그는 "나는 일체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몰록 놓으라는 것을 수행법의 요체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삶의 근본 주체인 '한마음 주인공'을 확고히 믿고 일체를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는 것으로 바로 '주인공 관법(觀法)'을 말한다.

이 주인공 관법의 선결조건은 믿음이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 본성에 대한 믿음이 참선의 근본이다"라고 하여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기신론〉에서 네 종류의 믿음 중에서도 '根本眞如(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가장 상위에 둔 점과 연관된다.

대행 선사는 모든 것은 한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그로부터 나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체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하며 돌아가고 있음을 설한다. 이러한 한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원융무이한 연기의 작용원리를 설명한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사상(五共思想)'이다. 이러한 오공사상은 〈대승기신론〉에서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은 능히 대승의 자체와 상과 용을 보인다"고 한 일심삼대 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마음'은 '일심'의 현대적 해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행 선사 자신만의 독특한 실천적 사상체계가 담겨 있다. 그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무조건 놓고 지켜보는 실천법인 주인공관을 제시하여 대중들이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용이하게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은 생활불교 강조로 이어져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가 어려운 이론사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상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五共, 남종선 정신 계승·승화

[주제발표]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삼론·반야 등 다양한 사상 접점
대행선, 〈이십사행론〉과 더 유사
실천이 수행 완성, 남종선 맞닿아

대행 선사는 일심(一心)을 오공(五共)으로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공은 일심의 작용이다. 그것은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共食)이다. 대행은 "사대가 원천이기에 생명과 생명, 우주 전체는 공생, 공체, 공용, 공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느니라"라고 말한다.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共의 개념을 空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무집착 공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사상은 반야사상과 유심사상이 결합하여 심화되고 완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사상의 근본에 반야사상이 깔려 있으며, 대행 선사가 선사로서 일대를 풍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야사상을 대표하는 공사상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모형을 당나라 때 활동한 삼론종의 개창조사인 길장의 사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길장은 〈삼론현의〉에서 자리이타와 공리(共利)를 강조한다. 이 경우 공리란 공동의 이익, 함께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길장은 이제(二諦)를 아는 것이 자리(自利)와 타리(他利), 그리고 공리(共利)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란 제일의제(승의제)와 세속제(세제)를 지칭한다. 제일의제가 분별의식을 초월한 무분별의 지혜를 지시한다면, 세속제는 분별과 개념, 논리와 언어의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편의적으로 구분한다면 표층세계와 표층세계의 이면인 본질의 세계이다.

대행 선사가 종이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 불이(不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길장은 제일의제와 세속제라는 개념을 통해 현상과 본질의 불이를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세속제는 제일의제에 들어가는 징검다리이다.

만일 징검다리나 설법이 없다면 대다수의 무지한 중생들은 피안의 세계, 불성의 세계, 내지 제일의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가 진실한 수행자에겐 모두 구비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완성하고,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점에서 공리라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공리는 공통하는 이익 내지는 공유하는 이익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대행 선사의 선사상은 오히려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통한다. 즉 사회적 실천과 자비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 사상적인 친근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 활동했던 고승 인순은 "이입(理入)은 돈이(悟理)이고 행입(行入)은 수도(修道)이다"라는 〈이입사행론〉에 나오는 문구는 여래장사상이며, 이 여래장설의 교설에 의거해 철저하게 신해하고 함망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한마음(一心 = 共體)을 바탕으로 공심과 공용을 분류한다면, 공심과 공용을 이입과 행입에 대비할 수 있다. 수행과 현실을 둘로 보지 않고 현실에 참여해 자비를 구현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며, 이입으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을 대비할 때 상통점이 많은 것은 대행 선사 역시 남종선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대성이다.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은 남종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자기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런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종교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은 불교적 수행을 관념의 세계에 가두지 않고 사회화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TOP 100
동국사랑 1·1·1
1인 1월 1만원 후원

동국사랑 1·1·1 캠페인 후원방법

1 스마트폰 약정
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약정서 작성
스캔 방법
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다음앱 접속
② 검색창 오른쪽 마이크 아이콘 클릭
③ 코드 메뉴 클릭 및 QR코드 스캔

2 휴대폰 사진 전송
본 광고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1800-3283)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3 후원 문의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 02-2260-3300
홈페이지 : http://ilove.dongguk.edu
팩스 : 02-2260-3796